

대학생 태권도시범단원의 역할갈등 탐색

김동현(성균관대학교 박사과정) · 권경상*(신한대학교 교수) ·
김범식(성균관대학교 교수)

국문초록

이 연구는 대학생 태권도시범단원들이 학생, 학교 시범단, 국가대표급 시범단 활동을 병행하는 중 다중역할 속에서 어떠한 갈등을 겪고 있는지 탐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대학교에 재학 중이면서 학교 시범단과 국가대표급 시범단을 병행한 경험이 있는 연구참여자 8명을 선정하여 심층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질적자료의 분석방법에 따라서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세 가지로 나타났으며 첫째, 지도자에 의한 역할갈등 둘째, 학업갈등 셋째, 시범단 문화갈등으로 나타났다. 연구참여자들은 다중역할을 수행하면서 각 소속 지도자들간의 의견불일치와 책임회피로 인해 역할갈등을 겪고 있었으며 수업결손과 같은 학업손실에 이어 역할갈등으로 인해 형식적으로 학업을 수행하고 있었다. 또한 태권도시범단이라는 집단 내에서 위계문화와 집단주의를 겪으며 개인의 삶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있었다. 이를 통해 대학생 태권도시범단원들의 역할갈등을 탐색할 수 있었으며 향후 대학생 태권도시범단원들의 역할갈등에 대한 순응과 저항 그리고 지도자들의 갈등까지 조명하여 태권도시범문화의 성찰에 대한 지속적인 진단을 기대한다.

주제어 : 대학생 태권도 시범단원, 역할갈등, 지도자, 학업, 시범단 문화

* top1797@kspo.or.kr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 대학교에서 태권도시범단의 활동은 체육 계열 학과에 속하여 학교운동부 문화가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있다. 태권도시범단은 무도 종목의 특성에 따라 예의를 강조하면서 더욱 강한 학교운동부 문화가 형성되어있다. 그러나 태권도시범단은 전문체육이 아닌 생활체육 및 클럽의 형태로 발전하여 대부분의 시범단원들은 학교운동부 출신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체육 관련 학과에 진학하면서 학교운동부 문화를 처음 경험하게 된다.

즉, 입학과 동시에 학생과 선수라는 서로 상반되는 사회적 역할을 받게 되는 것이다. 시범단원들은 다중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부과되는 역할 기대와 조직 내의 규율, 학생으로서의 학업 문제 등과 같은 다양한 갈등 상황에 노출된다. 역할이란 사회 내에 개인이 수행하는 여러 지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역할 갈등은 조율하기 어려운 다른 두 가지의 역할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 상황에서 발생(Redelinghuys, Botes, & de Wet, 1999)한다. 특히 태권도시범단은 학생, 학교 시범단, 국가대표급 시범단이라는 역할을 병행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독특한 문화가 형성되어 있다.

국가대표급 시범단¹⁾의 주류인 국기원시범단의 국·내외 시범 현황을 살펴보면 통상 대학교 학기 중에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국기원태권도시범단, 2020), 태권도시범단의 학습권이 어떻게 보장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생

1)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4의 2항에서 “국가대표선수”란 통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경기단체가 국제경기대회에 우리나라의 대표로 파견하기 위하여 선발·확정된 사람으로 정의되어 있다. 그러나 태권도시범단은 전문체육으로 분류되지 못하여 공식적인 국가대표는 아니지만 “국위선양”, “민간외교사절단”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그들의 문화 안에서는 제도권 태권도 기관인 국기원, KTA, WT에서 선발하고 운영하는 시범단을 국가대표 시범단이라 칭하고 있다.

가지 않을 수 없다.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 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국기원)에 태권도시범단 육성 및 국내외 파견이라는 조항이 존재하고 있으나 태권도시범단원의 학습권 보장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 학교운동부와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다. 흔히 말하는 승리지상주의와 군사문화의 잔존으로 인해 그들만의 문화가 형성되어 있다(이창섭, 남상우 2013). 학교 운동부는 전문체육 중심으로 국가 정책이 마련되어 있어 ‘일반학생’ 과 ‘학생선수’ 로 분류된 양극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이로 인해 일반학생들에게는 공부만을 학생선수들에게는 운동만을 강요하고 전체를 위한 개인의 희생이 당연시되고 있다(김동현, 윤양진, 2011).

학생선수의 학습권 박탈은 ‘박탈’ 인지 ‘거부’ 인지에 대한 질문과 함께 ‘엘리트 죽이기’ 라는 극단적인 표현과 ‘팀보다 위대한 개인은 없다’ 라는 긍정적인 차원에서 미화되고 전형적인 이론과 현실의 괴리에서 끊임없이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갈등으로 인해 학생선수는 학생으로서 책무를 회피하거나 포기하여 학력 저하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대학 생활 부적응과 선수로서 중도탈락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 이후 진로와 적응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송용관, 엄혁주, 신미진, 2010; 장한곤, 2019; 최미영, 이창섭, 서수진, 여정권, 2011).

학생선수들의 역할갈등과 관련하여 국내에서는 학생선수들의 다중역할에서 오는 문제점을 인식하여 전문체육영역에서 다양한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김양중, 정국영, 2002; 노미영, 문화실, 2019; 박지민, 최영래, 2012; 박진경, 2006; 윤지인, 박승하, 김효미, 2014; 장한곤, 2019; 최미영 외, 2011). 권헌수와 권경상(2018)의 해외 태권도 시범을 통한 국가주의 이데올로기의 경험 연구를 살펴보면 시범단 내에 규범에 의한 통제와 권력에 대한 순응을 규명하였다. 이는 시범단원들의 역할갈등이 존재함을 단편적으로 알 수 있는 연구결과이다.

태권도시범단은 전문체육과 유사한 환경 속에서 역할갈등이라는 필연적 상황에 노출되어 있지만 이와 관련된 학술적 조명은 미비한 실정이다. 전문체육에서 구명된 실증적 자료를 토대로 미루어 보았을 때 시범단원들의 역할갈

등 상황이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어 연구가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학생 시범단원들이 이중소속, 학업과 운동 등과 같은 다중역할 속에서 어떠한 갈등을 겪고 있는지를 심층적으로 규명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학생으로서 학업과 운동을 동시에 수행하면서 국가대표급 시범단을 병행하는 태권도시범 단원들의 모호한 위치에서 경험하는 갈등 상황을 조명한다면 태권도시범단의 제도적 모순점과 개인의 피해를 파악하고 향후 정책 개선에 많은 시사점을 안겨줄 것이라 사료된다.

따라서 이 연구는 대학생 태권도시범단원들이 학생, 학교와 국가대표급 시범단 활동을 병행하는 중 다중역할 속에서 어떠한 역할갈등을 경험하고 있는지 탐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해결하기 위해서 태권도시범단원이 경험하는 역할갈등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연구문제로 설정하였다.

II. 연구방법

1. 연구참여자

이 연구는 국가대표급 시범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학생 시범단원들의 역할 갈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참여자는 의도적 표집법(purposive sampling)을 이용하였으며, 연구참여자의 개인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의도적 표집법은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조사목적에 적합한 연구참여자를 의도적으로 선정하는 방법으로(Merriam, 2009), 다음과 같은 특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첫째, 대학생, 대학 소속 시범단, 국가대표급 시범단을 병행한 경험이 있는 시범단원들로 선정하였다. 둘째, 비교적 해외시범이 많은 국기원, WT 시범단원 경험이 있는 단원들로 선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시범단의 폐쇄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대학을 졸업한 시범단원들도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였다.

표 1.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순번	성명	성별	나이	시범단 경력	국가대표급 활동 경력	학년	학적	학업 성적	운동시간 (1일)
1	AAA	남	22	6년	A단체 2년	3	재학	중위권	5
2	BBB	남	23	4년	A단체 1년	4	재학	상위권	6
3	CCC	남	22	10년	B단체 3년	3	군휴학	하위권	5
4	DDD	남	26	6년	B단체 3년	-	졸업	하위권	6
5	EEE	남	26	6년	B단체 2년	-	졸업	중위권	6
6	FFF	여	23	7년	A단체 1년	4	재학	상위권	6
7	GGG	여	22	10년	A단체 2년	3	재학	중위권	4
8	HHH	여	22	13년	A단체 2년	3	재학	중위권	4

주: 연구참여자의 성명과 국가대표급 시범단 단체명은 알파벳으로 제시하였음.

2. 자료수집방법

이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에게 역할갈등에 대한 자료수집을 위하여 심층면담을 활용하였다. 심층면담을 실시하기 전, 학생선수 대상으로 연구된 역할갈등 관련 선행 연구 분석과 1차, 2차로 나누어 연구자 및 관련 전공 박사들과 의견수렴을 토해 예비면담 내용을 구성하였다. 최종 면담내용은 연구 비참여 자 2명을 대상으로 모의 심층면담을 진행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재확인 과정을 거쳐 구성하였으며 최종 면담내용은 <표 2>와 같다.

표 2. 면담내용

구분	분류	세부 면담내용
면담내용	주요타자 갈등	사회적 관계(교수, 지도자, 선배, 후배, 동료)
	학업 수행 간 갈등	학업 수행 과정(수업, 과제, 시험 등)
		수업 환경(수업의 양과 질, 교육과정, 수업내용, 학습 분위기 등)
	시범단 문화 갈등	국가대표급 시범단 활동(훈련시간, 훈련 분위기, 훈련내용 등)
학교 시범단 활동(훈련시간, 훈련 분위기, 훈련내용 등)		

심층면담은 개인 대 개인의 형태로 면담을 진행하였으며, 현재 직접 면담이 불가능한 대상에 대해서는 전화통화를 이용하여 면담을 진행하였다. 면담 방식은 전문가 회의를 통해 구성된 질문지를 바탕으로 반구조화 면담(semi-structured interview)을 실시하였다. 사전에 연구참여자와 일정 및 장소를 협의하여 선정하였으며, 주로 카페에서 진행되었다.

연구참여자에게 비밀보장에 대한 설명과 함께 연구 윤리성을 확보를 위하여 연구목적과 결과 사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은 뒤 면담을 진행하였다. 면담 시에는 면담내용의 충실도와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면담 내용은 휴대전화(S사)를 이용하여 녹취하였다. 면담 시간은 개인별로 1시간가량 진행하였다. 구체적인 답변과 내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 시 추가로 면담을 진행하거나 전화통화 또는 메신저를 통해 응답을 확보하였다.

3. 자료분석방법

자료 분석은 Spradley(1980)의 분류 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류 분석은 문화적 의미의 부분 혹은 요소를 발견하고 어떻게 조직되는가를 찾아내는 작업을 의미한다. 자료분석 과정은 우선 심층면담으로 수집된 면담 내용을 전사 작업을 하였다. 전사 작업의 과정으로 모든 자료와 녹음시킨 기록들은 개인 컴퓨터에 각각 분류하여 저장하였다. 전사된 자료를 반복적으로 검토한 후 원자료에 자주 묘사되거나 표현되는 중요한 개념어를 표시하고 개념들을 분류하여 저장하였다. 분류된 개념들을 상위범주로 분류하고 범주들의 속성과 차원을 설정하였다. 연구자의 편견과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관련 전공 박사들의 전문가 집단과의 협의하였다.

4. 연구의 진실성

자료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문헌 수집, 심층 면담 등을 통하여 자료의 다원화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연구자의 편향된 시각으로 자료

가 해석되고 연구결과가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성원 간의 검토(member checking)와 동료연구자 점검(peer debriefing)을 통해 내용을 검토함으로써 연구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처럼 자료의 진실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삼각검증법, 동료연구자의 내용검토와 조언, 연구참여자의 내용검토와 조언, 연구자의 반성과 성찰 등 Denzin(1989)이 개발한 신뢰성 증거들을 통하여 자료의 진실성을 확보하였다. 또한 자료의 수집에서부터 분석 및 해석까지 연구의 전 과정이 질적 연구의 논리와 방법에 맞게 진행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질적 연구에 익숙한 스포츠사회학 전공 교수 2명과 전공 박사 2명의 검토를 받았다.

Ⅲ. 대학생 태권도시범단원들의 역할갈등

이 연구는 대학 시범단원들의 학생, 학교 시범단, 국가대표급 시범단의 다중역할을 수행하면서 어떠한 역할갈등을 경험하는지를 분석하였다. 심층면담을 통해 분석된 자료는 지도자, 학업, 시범단 문화 갈등으로 3가지 영역의 범주로 분류되었다.

1. 지도자에 의한 역할갈등

지도자는 시범단의 전반적인 관리와 시범단 내에서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며 단원들을 통제, 관리한다. 이러한 지도자의 영향력은 각 소속단체 시범단 지도자의 특성과 결합 되어서 시범단원들이 저항할 수 없는 역할갈등을 경험하고 있었다.

1) 지도자 간 의견불일치

위계질서가 뚜렷한 우리나라 스포츠 영역에서는 선수와 지도자 간의 엄격한 상하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시범단에서 지도자는 시범내용 구성과

시범단원들의 역할을 배분하기 때문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시범단원들은 대학과 국가대표급 시범단을 동시에 병행하면서 양쪽 시범단 지도자들 사이에서 피교육자의 신분으로 갈등을 경험하고 있었다.

학교에서는 안되는데(못가는데) A단체에서는 가야(와야) 된다 이러면 중간에 끼어서 이도저도 못하게 되는데.. 둘다 안돼 이러면 여기서도 안된다 저기서도 안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될지...(연구참여자 FFF)

각 단체의 지도자들은 학생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단체의 입장만을 고수하였고 시범단원들은 지도자들의 강압적인 태도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학교에 일정 시범이 있잖아요...B단체 같은 경우에는 “너 혼련 안 나오고 시범 안 나오면 학교에나 가라하고 그냥 혼련 나오지 마라.” 하는 경우가 다반사였고, 학교에 얘기하면 “너 학교가 먼저야 거기가 먼저야” 하는 물음을 너무 많이 받아서(학교 지도자에게) 그런 부분이 저한테는 굉장히 엄청 스트레스였고 너무 딱 기억에 남아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어느 쪽도 안 물려줘 가지고 (연구참여자 EEE)

시범단의 독특한 특성인 국가대표급 시범단과 학교 시범단의 병행이 가능한 요인이 단원들에게 장점이 될 수 있으나 오히려 갈등 상황을 연출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도자들이 각자의 상황과 역할에만 충실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시범단원들의 갈등을 유발하게 되었다. 조건상(2015)의 학교 운동부 지도자 간 갈등에 관한 연구에서 지도자들이 각자 처해진 상황 속에서 각자의 역할에만 충실히 한다면 피해 보는 것은 학생선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시범단원들은 둘 이상의 역할에 참여함으로써 받게 되는 여러 기대들을 모두 충족시킬 수 없을 때 갈등상황이 심화 되고, 시범단 내에서 불확실한 권한을 가진 위치에서 둘 이상의 역할 수행에 대한 요구를 동시에 받게 된다. 이때 하나의 역할 요구에 응하는 것이 다른 역할에 대한 불이익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걱정으로 인하여 역할갈등을 경험하게 된다.

2) 지도자의 책임회피

우리나라는 고등 교육 기관인 대학에서는 학생들의 책임과 권한을 강조하며 그들의 자발적인 학업을 장려한다. 그러나 학생선수는 성인으로서 책임과 권한보다는 통제에 의해서 행동에 제약을 받도록 형성되어 있다. 시범단 또한 학교운동부 문화가 그대로 형성되어 있으며, 개인으로서 대처 불가능한 상황에서 지도자들은 책임을 회피하고 시범단원들이 감당하도록 하고 있었다.

그냥 그것을 포기하고 자기가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걸 배제하고 해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학업)에 대한 책임은 너희가 져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책임은.....(연구참여자 FFF)

시범단 활동의 구체적인 일정은 지도자들이 아닌 기관단체에서 관리를 한다. 시범단의 전체적인 일정 관리는 지도자들의 권한 밖에 일이지만 지도자들은 학생들의 입장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강압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었다.

(B단체) 감독님이 “교수님한테 많이 찾아뵙서 잘 할애를 구해봐라” 하시는데 교수님들이 그런걸(공문) 가져가면 절대 안 받으시고 그런다 말씀드리면 “계속해봐라” 해보라고만 말씀해주세요.(연구참여자 DDD)

시범단원들은 구체적이 대안 없이 ‘잘해봐라’, ‘알아서 해라’ 와 같은 불분명한 태도로 인하여 소외를 경험하게 된다. 지도자와의 수직적 관계에서 수동적으로 역할을 수행하는 시범단원들은 개인으로서 대처 불가능한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의지하는 지도자의 불분명한 태도는 다중역할을 수행하는 시범단원들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지도자들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된다. 지도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운동선수들의 중도탈락의 가장 큰 원인이다(강신욱, 강미선, 1999; 임수원, 이정래, 2002).

물론 이 같은 책임이 온전히 지도자들에게 있지는 않지만 정서적인 공감 없이 강압적인 태도로 시범단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한다면 시범단원들은 의지

할 곳을 잃고 문제를 회피하거나 포기하게 된다. 이러한 강압적으로 이루어지는 지도자와의 수직적 관계에서 갈등을 경험하지만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감내해야 한다(김재은, 김미라, 김기만, 2014).

2. 학업 갈등

학생으로서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은 학업이다. 그러나 시범단원들은 학업을 등한시하고 학생으로서 역할보다는 시범단원으로서의 역할에만 충실하면서 학생으로서 불이익을 경험하게 되고 대처방안 없이 스스로 감내하고 있었다.

1) 학업 손실

시범단원들은 학업보다는 시범단에서의 해외시범을 더욱 선호하고 있어, 학교 규정이 허용되는 한계까지 해외시범에 참여하고 있었다. 그러나 시범단원들의 해외시범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교내 학사규정과 시범단 운영규정에서 모순점이 발견되었다.

A단체 (해외)파견을 갈려고 학교에서 결석 당한 적이 있습니다. A단체에서 공문을 주기로 하는데 공문 말고는 협조해 주는 게 없습니다. 공문은 세 번밖에 되지 않아서...(연구참여자 AAA)

국가대표급 시범단에서는 시범단원들이 교내에서 수업을 협조 받을 수 있도록 공문을 제공하지만 교내 규정에 막혀 한계가 있었다. 이로 인한 수업결손은 개인이 오롯이 감당해야 되는 문제가 되었으며 학업손실로 이어진다.

파견(B단체)가 연달아서 3개가 있었는데 그거를 갔다 오니깐, 이미 3번 이상 이제 수업을 못 가게 된 거죠. 공문을 가지고 가도 이거는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해주시고...(연구참여자 CCC)

시범단원으로서 부여받은 사회적 역할 중에서도 국외 활동은 학생에게 향

후 취업과 관련하여 개인 업적 면에서 선호되는 혜택이다. 이를 위해 시범단원들은 학생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었다.

과건 때문에 수업을 2주 빠졌었는데 일단은 한번 놓치면 아예 모르겠는..... 그 수업을 놓게 되는 포기하게 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연구참여자 GGG)

시범단원들은 해외 시범으로 인한 수업결손은 학업 진도가 뒤처지고 학업을 포기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이러한 학력 저하는 중도탈락의 원인 중 하나이다(송용관, 엄혁주, 신미진, 2010; 장한근, 2019; 최미영 외, 2011). 전문체육 선수들의 경우 출전 성적 기준 제한, 학기 중 시합 출전 횟수 제한 등 학생선수들의 학습권을 보장해줄 수 있는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며, 국제대회 출전 등의 규정은 완화되어 있다. 그러나 시범단의 활동에 대한 제도적 지원은 미흡하다. 물론 이러한 수업결손은 성인으로서 개인의 선택에 의한 결과이지만 과거로부터 답습되어 오면서 시범단원들은 수업결손을 매우 당연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권현수, 권경상, 2018).

2) 형식적 학업

시범단원들은 시범단 활동이 개인의 삶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권현수, 권경상, 2018) 운동과 학업을 병행하는 학생선수라는 말이 무색하게도 학생으로서 학업은 배제되고 졸업만 하자는 식의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딱히 성적을 잘 받아야지라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3점만 넘으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는 것 같아요. 어차피 수업은 진도는 못 따라가고 그냥 학점만 떨어지지 말자. 졸업만 하자 이런 생각으로 학교 다니죠.(연구참여자 HHH)

학생선수들은 학업에 대해 일반학생들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학생의 역할은 배제하고 경기 실적만이 인생을 좌우한다고 생각하고 선수의 역할에만 충실하게 된다(김현우, 전현수, 2020). 이는 시범단원들에게도 비슷한 현상으로 나타났다.

평소에는 시간도 없고 몸도 힘들고 하니깐 그냥 바로 잡니다. 그냥 시험 기간에 도서관에서 최대한 벼락치기 식으로 공부를 몰아서 하고 시험 당일에 과목 밤새서 외워서 그 다음날 과목 외우고 이렇게 시험을 봅니다.(연구참여자 AAA)

학생과 선수 사이에서 생성되는 갈등은 일반적인 현상이다(Marx, Huffmon, & Doyle). 학생선수는 훈련과 경기 등 정해진 틀 안에서 조직에 맞춰진 하루로 인하여 학업은 뒷전이 되고 불필요한 것으로 학습되고 체화되어 있었다(명왕성, 정경환, 2019). 이로 인해 학생선수들은 수업을 듣는 행위는 단순히 대학 졸업을 위한 경력을 가지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학업과정에서 소외를 경험한다(최미영 외, 2011).

시범단원들 또한 마찬가지로 그들에게 학업손실은 시범단의 구성원으로서 당연히 감내해야 되는 것으로 내면화되어 있다. 시범단원들은 사회적으로 부과되는 두 가지 역할 사이에서 개인 가치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시범단 내에 형성되어 있는 규율에 순응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학업은 향후 진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학업에 대한 고민은 배제된다.

3. 시범단 문화 갈등

시범단 내에서는 우리나라 학교 운동부 문화에서 나타나는 위계적 서열관계, 집단주의 등 군대식 문화가 형성되어 있었다. 시범단 문화 내에서 구성원으로서의 삶을 강조한 나머지 개인의 삶은 통제되고 있었으며, 불합리한 관행들에 의해서 역할갈등을 경험하고 있었다.

1) 위계문화

우리나라 학교 운동부 문화의 특성인 위계문화는 엄격한 상하관계를 설정하고 상급자가 하급자들을 통제하고 있다. 시범단 또한 학교 운동부 문화가 그대로 이어져 오면서 상급자들에 의한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2학년 때까지는 대표 활동하는 걸 좀 안 좋아합니다. 한명 대표로 빠지게 되면 남아 있는 애들이 그 일까지 다해야하기 때문에 너무 대표 때문에 학교 시범단까지 놓치게 되는 거 같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중략)1.2학년 때는 오후수업을 못 듣습니다. 너무 다 빠져 버리면 운동 분위기가 그래서 못 듣게 합니다.(연구참여자 GGG)

시범단원들은 규율을 형성하고 상급자들은 권력을 마치 특권처럼 누리고 하급자들을 통제하고 개인의 삶보다는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삶을 강요한다.

처음 입학했을 때 2학년이 ‘이렇게 하면 안된다 하면 안된다’ 의 역할이 있는데 되게 무섭고 그랬어요. 불만은 있었는데 막상 말하려면 분위기가 그래서 말을 못했죠.(연구참여자 HHH)

불합리한 관행들은 답습되어 오면서 하나의 규범으로써 작용하게 된다. 위계적 서열관계에 의한 불합리한 관행이 답습되고 시범단의 경우 무도적 특성인 예의를 중요시하면서 더 강한 위계적 질서가 형성되게 된다.

체육대학이니까. 권위적이고 폐쇄적이고 태권도는 종목이 윗사람은 선배고 이런 인식이 있다 보니깐.(중략) 5시 운동시간에 1학년들이 와서 청소 같은 거 하나씩 어쨌든 그 시간은 비워 놔라 이런 겁니다. (연구참여자 BBB)

시범단은 무도종목 특성인 예의에 의한 복종의 구조가 형성되어 있다. 암묵적 복종의 구조 속에서 시범단원들은 저항의 가능성이 희박하다. 시범단에 종속되어있는 시범단원들에게 개인의 저항은 중도탈락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우리나라 학교 운동부 문화 내에 형성되어 있는 엄격한 선·후배 관계 속의 위계질서로 인하여 다양한 갈등 상황을 연출되고 있다(박지민, 최영래). 운영결과 정청희(1999)의 고교대학 축구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상급자의 부당한 행동이 가장 높은 스트레스로 작용한다고 하였다.

특히 시범단원들은 학교 운동부 문화를 대학에서 처음 경험하기 때문에 불합리한 관행에 의해서 혼란에 빠지게 된다. 서열 문화는 다수의 시범단원 통

솔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서열의 가장 아래에 위치한 시범단원들은 불합리한 관행들로 인해 소외를 경험하게 한다. 결국 시범단 내에 폐쇄적인 문화의 형성으로 위계적 서열관계는 그대로 답습되고 엄격한 규율이 형성된다. 이에 따라 시범단원들은 이러한 문화에 순응하고 내면화된다(권현수, 권경상, 2018).

2) 집단주의

이중소속으로 활동을 병행하는 시범단원들은 매우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어 국가대표급 시범단에서 각 대학에 소속되어 있는 시범단원들을 관리하는 것은 쉽지 않다.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가대표급 시범단 내에 암묵적인 규율을 형성하게 되고 강압적인 태도로 시범단원들에게 집단주의를 강요하고 있었다.

진짜 훈련 한번 빠지면 완전히 비상상태거든요 학교 때문에 B단체 훈련을 빠졌는데 그래서 B단체 감독님한테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받는거예요. 너무 많이 빠지니깐 (중략)저랑 000는 한번씩 전화로 잘렸다는 통보를 받은 적이 있어요.(연구참여자 EEE)

시범단은 단원들 간의 상호작용과 팀워크가 매우 중요하며, 이러한 상호작용과 팀워크는 단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시범단 내에서는 강압적인 태도로 불합리한 관행들이 이어져 오고 있었다.

정식훈련도 아니고 훈련비도 안주고 이런데도 “나와서 훈련을 해라 우린 시간이 없다. 한명 한명 개인 사정 봐줘 가면서까지 할 시간이 없다.” 이렇게 하고 학교 일정 때문에 B단체 훈련 참여 안하면 그렇게 되면 학교주말에 운동 많고 그러면 애들을 갑자기 짤라 버린단던지 이러니깐.(연구참여자 CCC)

태권도 기관에서 관리하는 국가대표급 시범단은 사슬적 위치관계에서 개인

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다. 이에 권력을 가진 태권도 기관의 강압적 태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조직을 위한 개인의 희생은 당연시되고 있다(권현수, 권경상, 2018).

거기(B단체)에서는 일단 살아남아야 되는 단체니까. 못하면 찢리는 거고 쓸모가 없어 지면은 버리는 단체이니까. 참고해야죠. (연구참여자 DDD)

시범단원들은 집단주의 문화에서 살아남기 위해 개인의 주체성과 자율성을 스스로 그들의 집단에 양도하고, 규율에 의해 형성된 개인의 사고와 행위로 스스로를 억압하고 통제하게 된다. 이는 개인이 개인을 통제 즉, 시범단 구성원들끼리 서로 통제함으로써 정서적 안정을 추구하게 된다. 이 같은 과정에서 시범단원들은 집단주의에 의해 여러 역할들을 배제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권세영과 임수원(2012) 우리나라 학교 운동부 문화에 형성되어 있는 집단주의 문화는 마치 군대를 연상케하는 지배와 통제가 존재하고 선수들은 이러한 지배와 통제에 순응하게 된다고 보고하였다. 즉, 시범단원들은 시범단 내에 형성되어 있는 규율에 순응하고 체화되면서 시범단에 더욱 집중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하지만 결국 이로 인해 개인과 집단 내부에 갈등이 생겨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시범단원은 인격체로서 기본권이 소외되어 단지 운동하는 기계로 치부될 수 있다.

IV.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대학생 시범단원들이 다중역할 속에서 어떠한 갈등을 겪고 있는지 탐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대학 재학 중, 학교 시범단과 국가 대표급 시범단을 병행한 경험이 있는 연구참여자 8명을 선정하였다. 자료수집 방법은 심층면담을 이용 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질적자료의 분석방법에 따라서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방법을 바탕으로 이 연구의 결과

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 시범단원들은 지도자에 의한 역할갈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참여자들은 대학·국가대표급 시범단을 병행하는 과정에서 양쪽 지도자들 간의 각자의 역할에 충실한 지시에 의해서 개인의 선택에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역할갈등이 나타났다. 또한 활동에 대한 제도적 지원의 미흡으로 인하여 지도자들은 강압적인 태도로 시범단원들에게 책임을 회피하고 전가하여 시범단원들은 다중역할 수행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대처할 수 없는 문제들로 인하여 역할갈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학생 시범단원들은 학업 갈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업에 대한 대학과 태권도 기관의 제도적 미흡으로 인하여 수업결손에 대처할 수 없어 학업손실로 이어지고 있다. 이로 인하여 형식적 학업 태도로 학생으로서 학업은 배제되고 학업은 단순히 대학 졸업을 위한 경력의 수단으로 인식하게 된다.

셋째, 대학생 시범단원들은 그들의 시범단 문화에서 갈등을 겪고 있었다. 시범단 내에서 답습되어 온 학교 운동부 문화인 위계 문화와 집단주의 문화로 인하여 개인의 삶이 통제되고 불합리한 관행이 내면화되고 있었다. 이로 인해 시범단원들은 조직을 위한 개인의 희생이 당연시되고 제도의 미흡으로 안전장치가 없이 소모되고 있다.

지난 시간 동안 시범단과 시범단원들은 개인의 열정과 사회의 기대와 관심 속에서 태권도 발전 및 우리나라 문화 전파에 기여 해왔다. 이 연구는 이러한 시범단의 사회적 순기능의 이면에 있는 개인의 역할갈등에 주목하고자 하였으며 순기능을 부정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연구를 통해 태권도시범문화의 전체적 성찰을 통해 보다 순수한 사회적 순기능을 기대하고자 한다.

이 연구를 통한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은 시범단원들이 역할갈등을 겪으면서 어떠한 형태로 순응하고 저항하는지에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또한 국가대표급 시범단과 학교 시범단의 지도자들 간의 갈등에 관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참고문헌

- 강신욱, 강미선(1999). 운동선수의 학업 태만과 중도탈락에 관한 일례.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12, 57-70.
- 권세영, 임수원(2012). 감독 권력에 대한 대학 엘리트 여성축구선수의 순응.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25(4), 109-125.
- 권현수, 권경상(2018). 해외 태권도 시범을 통한 국가주의 이데올로기의 경험. **국기원태권도연구**, 9(4), 23-41.
- 김동현, 윤양진(2011). 학생선수의 학습권보장제 도입을 위한 정책요소 및 우선순위. **체육과학연구**, 22(2), 2008-2024.
- 김양중, 정구영(2002). 대학운동선수의 학업능력과 선수-학생 역할만족도 및 역할헌저성에 관계.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15(2), 471-482.
- 김재은, 노미라, 김기만(2014). 직업무용수의 직업적 갈등요인 탐색. **한국체육과학회지**, 23(6), 1065-1076.
- 김현우, 전현수(2020). 대학운동선수의 수업참여실태 조사 및 학습권보장에 대한 인식 탐색. **한국체육교육학회지**, 24(4), 155-171.
- 국기원태권도시범단(2020. 07. 17). **국기원태권도시범단 파견현황**. 2020년 7월 17일 발췌. <http://demo.kukkiwon.or.kr/kor/introduce/history.do>
- 이창섭, 남상우(2013). **스포츠사회학**. 대전: 궁미디어.
- 임수원, 이정래(2002). 고등학교 운동선수의 중도탈락과 학교생활적응상의 문제점 및 대책.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15(2), 231-246.
- 노미영, 문화실(2019). 대학교 학생선수의 역할갈등 척도 개발. **한국체육과학회지**, 28(1), 379-390.
- 명왕성, 정경환(2019). 남성 축구선수들이 경험한 합숙훈련의 소외, 기능 그리고 사슬. **스포츠사회학회지**, 32(2), 110-127.
- 박지민, 최영래(2012). 한국 농구선수 되기: 하프-코리안 선수들의 한국 운동문화에의 갈등과 적응. **한국체육철학회지**, 20(3), 165-184.
- 박진경(2006). 학생운동선수의 운동정체성과 역할갈등의 관계. **한국체육정책학회지**,

4(2), 93-104.

송영관, 엄혁주, 신미진(2010). 운동중도탈락 체육특기자들의 학교 학습경험에 대한 이해: 학습권을 중심으로.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17(1), 89-109.

윤영길, 정청희(1999). 고교 대학 축구선수의 운동스트레스 척도 개발. **한국스포츠 심리학회 학술발표논문집**, 0(3), 17-45.

윤지인, 박승하, 김효미(2015). 대학생 운동선수의 역할 정체성 갈등에 관한 탐색. **한국체육과학회지**, 24(5), 389-403.

장한곤(2019). 엘리트 복싱선수의 운동정체성이 역할갈등에 미치는 영향: 경기력 수준별 다집단 분석. **한국체육과학회지**, 28(2), 1299-1309.

조건상(2015). 학교운동부 지도자 간 갈등에 관한 연구: 개인종목 감독교사와 코치 간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체육학회지**, 54(5), 89-103.

최미영, 이창섭, 서수진, 여정권(2011). 체육관련 학과 내 소외 전공자들의 역할 갈등 및 중도탈락 원인 분석: 댄스스포츠 특기자들 중심으로. **한국체육학회지**, 50(6), 145-158.

Redelinguys, N., Botes, L., & de Wet, M.(1999). Role conflict among women employees: fact or fiction?. *society in Transition*. 30, 54-68.

Denzin, N. K.(1989). *Interpretive interactionism*. Newbury Park, CA: Sage.

Marx, J., Huffmon, S., & Doyle, A(2008). The student-athlete model and the socialization of in-tercollegiate athletes. *athletic Insight*, 10(1), 1-23.

Merriam, S. B.(2009). *Qualitative research: A guide to design and implementation*. San Francisco: Jossey-Bass.

Spradley, J. P.(1980). *Participant observation*. New York: Holt, Reinhart and Winston.

ABSTRACT

**Exploration of the Role Conflict of Taekwondo Demonstration University
Student Athletes**

Kim, Dong-Hyun(Sungkyunkwan Univ.) · Kwon, Kyung-Sang(Sinhan Univ.) ·
Kim, Bum-Sik(Sungkyunkwan Univ.)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what kind of conflict Taekwondo demonstration university student athletes are experiencing in the performance of multiple roles such as students and demonstration team members, school demonstration team and national team-level demonstration team activities. For this, eight research participants who were attending universities and had experience of conducting as a member of school demonstration teams and national team-level demonstration teams were selected. Data was collected through in-depth interviews and analyzed according to the qualitative data analysis method. The results of the study came out in three ways, and they are as follows. They are first, role conflict by leaders, second, academic achievement conflict, and third, demonstration team cultural conflict. As the participants of the study performed multiple roles, they were experiencing role conflicts due to disagreements and evasion of responsibility among the leaders of each organization. In particular, they suffered academic achievement losses due to class defects, and was formally performing academic studies due to role conflicts. Also, within the group called Taekwondo demonstration team, conflicts were occurring in the individual's life through hierarchical culture and collectivism. Through this, this study explored the role conflict of Taekwondo demonstration university student athletes, and in the future, it is expected that constant diagnosis to reflect on Taekwondo demonstration culture is needed through illuminating adjustment and resistance to the role conflicts of Taekwondo

demonstration university student athletes, and leaders' conflicts.

Key words: Taekwondo demonstration university student team, role conflict, leader, academic achievement, demonstration team culture

논문투고일 : 2020.09.30.
심사일 : 2020.10.11.
심사완료일 : 2020.10.31.